

박삼구 회장, 금호타이어 인수작업 돌입

그룹 전략실 금호산업 소속으로... 아들 박세창 사장 등기 임원에 1조 인수자금 단독 부담 상황... 산은 “中 공장 분할 매각 검토”

산업을 병합한 금호타이어 재건단이 지난 2일부터 실사작업에 돌입하고 있는 가운데 박삼구 금호아시아나 회장도 인수를 위한 사전작업에 돌입했다.

15일 금호아시아나 등에 따르면 금호타이어 인수 작업을 맡은 그룹 전략경영실을 지난 1일자로 아시아나항공에서 금호산업 소속으로 이관했다. 지난달 승진한 박 회장의 외아들 박세창 전략경영실 사장으로 금호산업 이사회 멤버로 불러들이는 등 속원 사업인 금호타이어 인수에 집중하는 분위기다. 또 ‘육상육’ 구조로 돼 있는 금호산업 최대주주(46.51%)인 금호기업을 합병하는 방안도 검토 중인 것으로 알려졌다. 금호산업 위주로 전열을 가다

두고 금호타이어 인수전에 본격 뛰어들 준비를 하는 셈이다.

현재 금호타이어는 매각 공고 전 단계인 타당성 조사를 받고 있다. 업계에서는 금호타이어 가치를 경영권 프리미엄까지 더해 1조원가량으로 추정하고 있다.

하지만 업계에서는 금호산업 인수처럼 박 회장이 전략적투자자(STI) 등을 유치하지 못해 사실상 금호타이어를 되찾기 힘들 것이라는 분석도 나온다.

재건단에 따르면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 우선매수권을 가지고 있지만 ‘제3자 지정 권한’을 가지고 있지 않다. ‘제3자 지정권한’은 금호산업 인수 때 CJ같은 전략적 투자자를 끌어들이 수 있는 권한이다. 즉 박

회장은 금호타이어에 대한 인수자금을 오롯이 단독으로 부담해야 하는 상황인 것이다.

진행 중인 실사결과도 매각과정에서 중요변수로 작용할 전망이다. 실사는 매각 주관사인 크레디트 스위스, 딜로이트안진, 법무법인 광장 등이 참여하고 매수 후보자 물색, 기업가치 평가 등 매각을 위한 타당성 조사에 초점을 맞춘다. 재건단은 실사 완료까지는 3개월 이상 소요될 것으로 보이며 하반기에 본격적으로 매각 작업을 추진할 것으로 전망된다. 투자자 대상이 글로벌 공개경쟁 입찰임을 감안해 해외 투자자까지 접촉해야 하기 때문에 다소 시간을 넉넉히 잡았다는 것이 산업은행의 설명이다.

IB업계 관계자는 “1조원 가량을 인수할 만한 기업이 많지 않을뿐더러 국내 타이어 제조 산업이 한국타이어와 금호타이

어, 넥센타이어 등으로 나뉘어 있는 만큼 독과점 문제가 있어 부담스러울 수 있다”고 말했다.

이 때문에 인수업체 부담을 덜기 위해 중국 공장의 분할 매각도 한 방안으로 떠오르고 있다. 금호타이어는 중국 남경 2곳, 천진, 장춘에 각각 1개씩 총 4개 공장을 운영하고 있다.

중국에 위치한 글로벌 타이어 업체들이 금호타이어 중국 공장에 큰 관심을 보이고 있다고 알려졌다. 더욱이 중국정부가 해외 기업의 중국 내 공장 설립을 제한하고 있어 글로벌 기업들의 중국 공장 인수가 절박한 상황이다.

IB업계 관계자는 “박삼구 회장 입장에서 유일하게 남은 제조업이자 캐시카우(현찰 보유력)였던 금호타이어를 어떻게든 인수하려 할 것이다”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한국전력공사는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중국 최대발전회사인 중국화능집단 및 연안 석탄화력 발전사업 추진을 위해 양해각서를 체결했다. 앞쪽 왼쪽부터 임청원 한전 해외사업개발처장, 화능집단 규획부 주임 왕규기가 사인을 하고 있다. <한국전력 제공>

한전, 中 최대 발전사와 현지 화력발전 개발

동천·연안 석탄화력 추진... 내년초 착공 2019년 가동

한국전력공사가 중국 최대 발전회사인 중국화능집단과 손잡고 석탄화력 발전소 개발에 나선다.

한전은 지난 14일 중국 베이징에서 이 같은 내용의 양해각서를 체결하고 동천·연안 지역에 각각 2000MW(메가와트), 1320MW 규모의 발전소를 개발하기로 했다고 15일 밝혔다.

이번 양해각서로 한전은 발전소 운전 및 정비, 재무 등을 담당하는 경영진을 현지로 파견하고 이사회 중요 안전에 대한 의견을 행사하게 됐다.

이번 사업에는 석탄화력 발전시스템 증기 압력 등을 높여 이산화탄소(CO2) 배출량을 줄이는 친환경 기술 ‘초초임계압’이 적용된다.

초초임계압은 기술력 면에서 중국이 한국보다 선진화돼 한전은 이번 사업을 통해 관련 기술을 끌어올려 앞으로 유사 사업을 진행할 때 활용할 수 있을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

이 프로젝트는 내년 상반기 착공, 2019년 상업운전을 목표로 하고 있다.

사업 프로젝트 중 동천 발전소의 경우

화능집단이 2007년부터 단독 운영하던 1기 발전소(1200MW)를 증설하는 것이다.

발전소는 중국 정부가 추진하는 서부지역 대개발 프로젝트의 거점으로 활용될 예정이다. 전력공급이 부족한 섬서성 지역에 20년 이상 안정적인 전력 공급이 가능할 것이라고 한전 측은 전했다.

조환의 한전 사장은 “양국의 대표적인 전력 그룹이 그간 다진 협력 관계를 실질적 사업으로 구체화하는 출발점이란 점에서 이번 사업은 중요한 의의를 지닌다”며 “중국은 물론 제3국에서도 양사 공동사업 개발이 활성화되기를 기대한다”고 말했다. <최재호기자 lion@kwangju.co.kr>

삼성전자 중남미 3년연속

‘일하기 좋은 기업’ 선정

삼성전자가 중남미에서 3년 연속 가장 일하기 좋은 기업으로 선정됐다.

삼성전자는 브라질, 멕시코, 파나마, 콜롬비아, 칠레, 아르헨티나 6개 법인이 글로벌 인사전략 평가기관인 ‘톱 임플로이언스 인스티튜트(Top Employers Institute)’가 주관한 2016 중남미 최고 고용 기업(Top Employer)에 뽑혔다고 15일 밝혔다.

최고 고용 기업은 임금정책, 업무조건, 혜택, 교육 프로그램, 경력개발, 기업문화 등 9개 부문에 대한 조사·평가를 통해 선정된다.

삼성전자는 2014년 브라질 법인의 첫 수상을 시작으로 2015년 아르헨티나, 브라질, 칠레, 콜롬비아 4개국으로 확대됐으며 이번 6개국 수상으로 역대 최고 기록을 세웠다.

삼성전자는 1971년 중남미에 처음 진출한 이후 지속적으로 현지 근무환경 개선과 인력 육성을 위해 노력해 왔다.

삼성전자는 중남미 현지 직원을 한국 본사에 일정기간 파견해 업무 노하우를 배우고 본사 인력과의 관계를 강화하는 글로벌 모빌리티(Global Mobility) 프로그램도 운영 중이다.

또 브라질 등 일부 국가에서는 대졸 신입사원 공개채용제도를 통해 현지 고용 창출에도 기여하고 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인터넷에서 만나는 광주일보
www.kwangju.co.kr

한 눈에 보는 경제지표

↓ 코스피 1969.97 (-2.30)	금리 (국고채 3년) 1.53% (0.00)
↑ 코스닥 693.34 (+2.29)	↑ 환율 (USD) 1187.70원 (+1.60)



광주국제청 남민 문화유적지 탐방 광주지방국세청(청장 한동연)은 14일 동서 화합과 소통을 위해 전북 남원에서 대구청장 및 간부진을 초청해 문화유적지 탐방 등 소통의 자리를 가졌다. <광주지방국세청 제공>

LED기업 7곳 日에 500만달러 수출 계약

광산업진흥회 전시회 성과... OLED 공동기술개발 협약도

케이웨이제이, 나우웍스, 에스펙, 태종, 웨이브시스컴스, 기린정밀공업 등 한국 광산업진흥회 회원사 7곳이 일본에 500만달러 규모로 LED·OLED(유기발광다이오드)제품을 수출한다.

한국광산업진흥회(회장 이재형)는 지난 8일부터 11일까지 일본 도쿄 빅사이트에서 열린 ‘2016 LED넥스트 스테이지’ 전시회에서 중소기업 공동관을 구성, 2100만달러 규모 계약상당과 500만달러어치 계약을 체결했다고 15일 밝혔다.

또 전시회 기간 한국광산업진흥회는 일본 LED광원보급개발기구(DLEDA)와 회원사간(케이웨이제이·넥스트) OLED 공동기술개발을 위한 업무협약도 체결했다.

이번 협약으로 한국광산업진흥회 LED분야 회원사를 비롯한 국내 LED 업체 일본 진출 기회가 확대될 전망이다. 10개국 142개 업체가 참여한 이번 전시회는 LED 분야 종합 전시회로 글로벌 트렌드를 들여다볼 기회다. 신사업 아이템을 창출하고 신규 바이어를 발굴할 수 있다.

조용진 한국광산업진흥회 상근부회장은 “진성바이어 확보와 지속적인 사후 관리 및 일본 LED광원보급개발기구(DLEDA)와의 유기적 협력을 통해 수출성당회를 밑거름 지원했다”며 “이를 계기로 올해 국제광산업전시회에서는 역량있는 해외바이어가 다수 참석할 것으로 기대된다”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아시아나항공, 승무원 훈련기관 인가 취득

아시아나항공이 국토교통부로부터 객실승무원 훈련과정에 대한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취득했다고 15일 밝혔다.

이에 따라 아시아나항공은 다른 항공국도부터 승무원 안전훈련 교육을 위탁받아 운영할 수 있다.

아시아나항공의 훈련시설은 2013년 3월 대규모로 증축했다. 비상착륙, 응급처치, 화재진압, 비상탈출 등 12개의 비상상황 실습실로 구성됐으며 교관들

은 항공보안, 위험물, 기중훈련자격 등에 대한 국제교육기관의 전문 자격을 보유하고 있다.

아시아나항공 관계자는 “작년 10월 국토부에 항공훈련기관 인가를 신청한 이후 서류검사와 현장실사 등 엄격한 심사를 거쳐 인가를 받게 됐다”며 “객실승무원에 대한 안전훈련 노하우를 국내외 다른 항공사에 전파하는 계기가 될 것”이라고 말했다. <김대성기자 bigkim@kwangju.co.kr>

이동식 한옥 사랑채

사랑채, 힐링하우스, 한옥펜션, 이동식주택, 도시옥상 휴식공간이나 민박, 농가주택, 찜질방, 이동식 화장실 등 다양한 용도로 사용가능

전통한옥을 집묵한 원목위주의 친환경 자재와 철구조로 이루어진 내진설계 내화판넬을 이용한 우수한 단열효과 및 화재를 미연에 방지 할 수 있는 안전하고 쾌적한 이동식 시스템한옥

단열걱정 NO! 소음걱정 NO! 화재걱정 NO!

내부

한옥은 특히 단열성

서까래 및 부연

화장실

기본옵션 | 화장실, 싱크대, 신발장, 바닥난방

www.뽕마루.com 이동식 한옥 전문기업 (주) 조승학수정 ☎ 061-461-1800 H. 010-3631-0372

現)BLVD HOTEL 서울 영등포 로터리 신축 호텔

매매 교환

15층 81실 임대완료(성업중)

보증금 10억, 월세 7500만원

- 시행사 직접매매
- 매매가 165억원(조정가)
- 교환가능(토지, 건물 등)
- 직영가능

담당자 : 조승정 상무 010-7624-8822